

# 자율관리어업

## & 수산소식

The Fisheries Newsletter

(06775) 서울특별시 서초구 논현로 83, 삼호물산빌딩 A동 501호 Tel : 02)589-4604 Fax : 02)589-1500 www.korfish.or.kr

발행인 : 회장 김영규 ■ 기사·편집 : 자율관리팀

### 자율관리 성공사례 전수 현장교육 본격 실시



양양 수산공동체에서 개최된 현장교육 모습.

성공한 공동체를 방문·견학함으로써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기 위한 성공사례 전수 현장교육이 한국자율관



화성 백미리공동체에서 열린 현장교육 모습.

리어업연합회 주관으로 6월부터 본격 실시되고 있다. 이번 성공사례 전수교육은 부산 미포공동체 어업인 20여명과 전남 해남 어란공동체 어업인 3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지난 6월 8~9일, 10~11일 1박2일 일정으로 강원도와 경기도의 대표적인 공동체인 양양 수산공동체와 화성 백미리공동체에서 각각 실시됐다.

한편 연합회는 올해 12개 공동체에 대한 현장교육을 11월 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 자율관리어업 전문분야 컨설턴트 운영 기술분야 등 4개 분야 전문가 17명 위촉

한국수산회는 자율관리어업 추진 과정에서 겪는 공동체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전문분야 컨설턴트를 활용한 지원방안 마련에 나섰다.

이와 관련, 한국수산회는 지난 6월 △기술 △자원 △안전 △경영 4개 분야에 대한 전문가 17명을 전문컨설턴트로 위촉했다. 전문컨설턴트들은 컨설팅을 신청한 전남 25개 공동체를 비롯, 전국 40여 공동체를 대상으로 교육일정에 따라 연 2~4회 공동체를 방문해 컨설팅을 추진하게 된다.

다음은 자율관리어업 전문분야 컨설턴트 명단이다.

□ 기술분야(4명) △한정조(경기해양수산자원연구소) △문재학(전북수산물연구소)

술연구소) △이항복(전남해양수산과학원) △김효근(경남수산자원연구소)

□ 자원분야(8명) △이정훈(국립수산과학원) △양재형(동해수산연구소) △윤상철(동해수산연구소) △김맹진(서해수산연구소) △유준택(남해수산연구소) △이승종(제주수산연구소) △송미영(중앙내수면연구소) △구성우(수산자원관리공단)

□ 안전분야(2명) △강신백(선박안전기술공단) △전형준(선박안전기술공단)

□ 경영분야(3명) △박수만(선진회계법인 공인회계사) △황연택(나라사랑법률사무소 변호사) △이효상(한국수산회)

### 자율관리어업 우수공동체 선정대회 오는 11월 개최

자율관리어업을 통해 추진한 각 공동체의 성과를 공유하고 우수공동체를 선발·시상함으로써 참여공동체의 사기진작 및 우수사례를 확산시키기 위한 자율관리어업 우수공동체 선정대회가 오는 11월 중 정부세종컨벤션센터(예정)에서 개최된다.

이번 우수공동체 선정대회는 공동체 어업인 및, 유관기관 관계자 등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마을어업 △어선어업 △내수면어업 △복합양식어업 등 4개 분야별 경연이 펼쳐진다.

선정대회는 오는 7월 중 각 지자체를 통해 접수한 공동체를 대상으로 서류심사 및 현장점검(8~9월)을 거쳐 선정된 공동체를 대상으로 발표 및 심사위원 질의응답을 통해 우수공동체를 최종 선정하게 된다.

한편 우수공동체 선정대회는 자율관리어업 관련 규정에 따라 짝수년도에는 '자율관리어업 전국대회'를, 홀수년도에는 '우수공동체 선정대회'를 개최기로 함에 따라 올해 처음으로 열리는 행사이다.

###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취임

“자원회복 등 수산업 현안해소에 주력”



김영춘장관이 6월 19일 정부청사 대강당에서 제20대 해양수산부 장관 취임식을 가졌다.



했다. 또 바다모래 채취문제, 중국어선 불법조업 문제 등 수산업이 당

면한 현안 해소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1962년 부산에서 태어나 부산동고와 고려대 영문학과, 고려대 대학원(정치외교학 석사)을 졸업한 3선 의원으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을 역임했다.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6월 19일 세종청사에서 취임식을 갖고 “바다 및 연안의 생태환경과 자원을 회복시켜 수산업을 고부가가치 식품산업, 수출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

### 해양수산부 차관에 강준석 수산과학원장



강준석 국립수산과학원장이 6월 15일 신임 해양수산부 차관에 임명됐다. 강 차관은 1962년 경

남 함양군 출생으로 함양고와 부산수산대 수산경영학과를 졸업한 뒤 영국 헐대학 자원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제22회 기술고시를 통해 공직에 입문, 어업자원정책관·수산정책관·국제원양정책관·수산정책실장 등 수산분야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친 수산전문가이다.

## 자율관리어업

### 지속가능한 어업생산 기반의 주춧돌

우리 바다, 우리 수산자원을 소중히 여기는 인식의 전환  
자율관리어업 성공의 지름길입니다.

### 어업인 스스로 지키고 가꾸는 자율관리어업 활동

#### 어장관리 활동



어장정소, 해적생물구제, 바위돛이 등으로 수산자원들이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요.

#### 자원조성 활동



체포제장 제한, 금어기 준수, 어획 능력 식감, 종자방류 등으로 자원을 관리해요.

#### 경영개선 활동



공동어업장, 판매 방법 다양화, 가공품 개발로 공동체의 소득을 증가 시켜요.

#### 질서유지 활동



공동체 구성원 간의 협력과 적극적인 분쟁 해결로 공동체 간의 질서를 유지해요.

### 자율관리어업 중요성 대국민 홍보 추진

우리나라 주요 수산정책으로 자리 잡은 자율관리어업을 어업인 뿐 아니라 일반국민들에게도 널리 알려 수산자원을 보호하는데 동참할 수 있도록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활동이 강화된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부는 7월부터 연말까지 SNS 및 블로그, 서포터즈를 활용한 홍보를 추진하는 한편 중앙일

간지를 통해 자율관리어업의 활동상을 소개하는 오프라인 홍보도 병행기로 했다.

한편 정부차원에서 자율관리어업의 중요성을 일반국민들에게 온·오프라인을 통해 적극 홍보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향후 설문조사 등을 통해 정책 홍보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 해수부, 자율관리어업 홍보 포스터·소책자 발간



포스터는 지속가능한 어업 생산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어장관리 △자원조성 △경영개선 △질서유지 등 자율관리어업을 어업인 스스로 잘 실천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소책자에는 △자율관리어업의 필요성과 참여방법 △자율관리어업을 위한 활동

공동체 등 3개 부분으로 구분, 자율관리 공동체 활동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을 수록했다.

해양수산부는 최근 자율관리어업 홍보를 위해 포스터와 소책자를 발간해 지자체 및 전국의 공동체에 배포했다.

### 김영춘 해수부 장관, 여수 가두리양식장 방문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취임후 여수와 인천지역 등을 잇따라 방문해 어업인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사진은 6월

17일 여수 가두리양식장을 찾아 적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방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장흥군, 바다살리기 실천대회 개최



장흥군 관내 어업인 및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지난 6월 20일 회진면 대리항 일원에서 바다살리기 실천대회를 가졌다.

전남 장흥군은 지난 6월 20일 회진면 대리항 일원에서 지역 어촌계, 수산경영인회, 해양환경안전협회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바다살리기 실천대회'를 개최했다.

장흥군과 전남일보가 공동으로 주최한 이날 행사는 득량만 연안의 생태계를 복원하고 항구적인 보존방안을 찾

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참가자들은 대리항 앞에 집결하여 간단한 개회식을 갖고 해안쓰레기 수거활동을 펼쳤다.

장흥군은 이번 행사를 통해 바다를 생활터전으로 하고 있는 어업인들의 해양환경의식을 고취하고 지속적인 정화활동 참여를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 자율관리어업 유관기관 업무추진 협의회



해양수산부와 유관기관 자율관리어업 추진회의 모습.

해양수산부는 자율관리어업 발전 방안 마련을 위해 지난 6월 15일 세종청사 회의실에서 한국수산회, 자율관리어업연합회 등 유관기관 관계자와 업무협의회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자율관리어업 활동실적 평가 및 하반기 추진사항에 대해 협의했다.

한편 해수부는 언론매체 홍보와 해외우수사례 답사, 우수공동체 선전대회 등 하반기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 충남 자율관리공동체 활성화 실무협의회



충남 자율관리공동체 활성화 실무협의회 모습.

충남도는 자율관리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지난 6월 9일 보령 대천항에 소재한 수산자원연구소에서 충남도 자율관리공동체 활성화 교육을 실시했다.

양진목 충남자율관리연합회장 등 충남지역 자율관리어업 실무위원 등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협의회에서는 도내 자율관리어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

### 해수부, 남해어업관리단 출범

관할수역은 제주도 해역과 전남 진도~경남 거제 여수에 출장사무소 개설, 7월 19일 기념행사

제주도와 그 이남 해역만을 관할하던 제주어업관리사무소가 남해어업관리단으로 승격되어 남해 연안을 전담해 관리하게 됐다.

해양수산부는 기존 동해어업관리단 소속 제주어업관리사무소를 남해어업관리단으로 확대 개편하는 내용의 직제개정안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시행규칙 등은 기존 동·서해단 2개 단 체제를 3개 체제로 개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남해어업관리단의 관할구역은 제주도 및 그 이남해역과 경남 거제부터 전남 진도해역, 한일중간수역 등이다.

해양수산부는 그동안 서해어업관리단이 관장해 온 전남지역의 관할구역 변경에 따른 어업인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여수 지역에 남해어업관리단 출장사무소를 개설,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남해어업관리단은 오는 7월 19일 지자체(제주특별자치도) 등 관련 기관 및 어업인들과 함께 출범을 축하하는 기념행사를 가질 예정이다.

### 공원진 앞바다에 완전양식 명태 치어 15만 마리 방류



강원도 고성군 공원진항 앞바다에 인공 2세대 어린 명태 15만 마리가 방류됐다. 이번에 방류된 어린 명태는 지난해 세계 최초로 성공한 명태 완전양식기술을 통해 탄생한 인공 2세대이다.

해양수산부는 제22회 바다의 날을 기념해 5월 30일 강원도 고성군 공원진항 앞바다에서 인공 2세대 어린명태 15만 마리를 방류했다.

이번에 방류되는 어린명태는 지난해 세계 최초로 성공한 명태완전양식기술을 통해 탄생한 인공 2세대로, 강원도 한해성 수산자원센터에서 키우고 있는 100만 마리 중 일부이다.

해수부는 강원도와 함께 '명태살리기 프로젝트'를 통해 2015년 인공 1세대 명태 1만 5000 마리를 방류했다. 이후 명태완전양식을 통해 인공 1세대에게서 2세대 어린명태를 얻었으며, 최초방류 이후 2년만에 10배에 달하는 15만 마리의

어린명태를 방류하게 됐다.

이번에 어린명태가 방류될 강원도 공원진항 해역은 해수부가 2013년부터 수산자원 회복을 위해 바다목장 조성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지역으로, 자연임반지형에 약500여기의 인공어초가 설치되어 있어 어린명태들이 적응하기 적합한 환경으로 판단됐다.

해수부는 지난 1월과 2월 동해에서 포획한 명태의 유전자 분석 및 부착표지 확인을 통해 기존에 방류한 인공양식 명태가 우리 바다에 잘 정착해 살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번에 방류되는 명태 역시 자연에 잘 적응하여 우리 명태자원 회복의 출발점이 되길 것으로 기대된다.

특별기고

# 자출관리공동체와 수산물 인터넷 판매

근래 백화점, 대형마트 등 오프라인 유통시장은 성장세가 둔화되는 반면 온라인 판매시장(전자상거래) 거래액은 2013년 38조원에서 2016년 66조원으로 3년 만에 74%의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수산물 유통시장도 온라인 판매가 점차 확대되는 추세이며, 이미 수산물 유통시장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소포장 판매 여력을 갖춘 자출관리공동체에서 아직도 온라인 판매시장에 진입하지 않았거나, 온라인 판매가 지지부진한 공동체가 많아 이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한다.

한국수산회는 정부 지원하에 지난 2004년 인터넷쇼핑몰 '피쉬세일'을 오픈, 수산물 전문 쇼핑몰로서 입지를 강화하는 한편 전자상거래에 지식이 부족한 일선 어업인들을 위해 무료로 '전자상거래 컨설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수산물 인터넷 판매와 관련, 한국수산회의 공동체에 대한 지원사항은 다음과 같다.

### 수산물 인터넷 판매 지원사항

첫째로 인터넷 판매를 위한 온라인 판매 진입 과정 컨설팅이다.

온라인 판매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통신판매업 신고가 필수인데 아

직도 법은 복잡하다고 생각하거나, 정보력 부족 및 고령화 등으로 망설이고 있는 공동체 회원들이 많다. 이런 분들을 위해 온라인 판매 진입을 위한 기본 과정을 설명하고 가입을 도와드리는 컨설팅을 수행한다. 또한 구매안전서비스, 생산물 배상책임보험, 개인정보보호 등은 온라인 판매를 위해 필요한 항목으로 한국수산회에서 자체적으로 가입하여 공동체 회원들에게 무료로 서비스하는 항목들이다.

둘째로 상품기획 컨설팅이다. 신규로 온라인 판매에 진입하더라도 어떤 상품을 어떤 포장단위로 얼마에 팔아야 하는지 모르는 회원들을 위해 맞춤형 컨설팅을 수행한다. 한국수산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수산물 전문 쇼핑몰인 피쉬세일(www.fishsale.co.kr)에는 이미 전국 각지의 13,000여개 상품이 등록돼 있기 때문에 이를 기반으로 상품기획을 위한 1:1 맞춤형 컨설팅을 수행한다.

셋째로 상품촬영 및 상세페이지 제작 대행이다.



**이효상**  
자출관리어업 전문분야 컨설턴트  
(한국수산회 유통진흥팀장)

전문 촬영기사 및 디자이너가 상품을 촬영하고 요리법, 가공과정, 장점 등이 포함된 상세페이지 제작을 무료로 대행해 준다. 또한 제작된 촬영이미지 및 상세페이지는 저작권 제한 없이 개인 홈페이지나 타 쇼핑몰에도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온라인 판매를 신규로 시작하는 회원들에게 특히 유용한 서비스이다.

개개인이 제작하려면 수십만원의 비용이 들거나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출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많은 공동체 회원들이 이러한 서비스를 몰라서 사용하지 못하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넷째 판로확대 및 주문관리 지원이다. 옥션, 지마켓 등의 오픈마켓에서부터 종합몰까지 다수의 쇼핑몰에 상품을 올리고 관리하려면 전담인력이 필요하며, 고객불만 처리가 까다로운 수산물의 경우 고객응대에 지쳐서 인터넷 판매를 포기하는 어가들이 적지 않은 편이다. 이에 한국수산회 같은 쇼핑몰 업체를 통한 간접 입점이 대안이 될 수 있다. 간접 입점을 하면 오픈마

켓 혹은 종합몰의 주문 또한 수산회에서 모두 취합하여 관리해 주기 때문에 공동체에서는 업무 부담을 덜게 된다.

다섯째 상품포장재 디자인 무상 제공이다.

한국수산회는 포장재 고급화와 영세 어가의 디자인 비용절감을 위해서 수산물 포장재 디자인을 80여종 개발하여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전문 디자이너와 협업을 통해 종이상자, 비닐팩, 냉동/진공팩 등의 디자인 소스를 데이터베이스화(피쉬디자인, www.fishdesign.co.kr) 했으며, 사용권 제한없이 무료로 다운받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수산물 온라인 판매는 오프라인 시장에 비해 진입장벽이 낮은 대신 박리다매로 인한 치열한 경쟁과 주문관리 업무부담 가중이라는 단점이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공동체 상품 판매확대를 위한 '기회의 시장'이라 할 수 있다. 자출관리어업 공동체 어가들도 온라인 수산물 시장의 변화에 대응하고, 온라인 판매 활성화를 위해 한국수산회의 여러 가지 지원사항을 잘 활용한다면 애써 생산한 수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 믿는다.

## 해수부, 2016년 낚시어선업 운영현황 발표

### 낚시어업 성장세 '뚜렷'... 이용자·매출액 모두 증가



지난해 낚시어선 이용자 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작년 전국 낚시어선으로 신고된 어선 수와 이용자 수, 매출액 모두가 증가해 낚시어업의 성장세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수산부가 발표한 '2016년도 낚시어선업 운영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낚시어선 신고 척수는 2015년 4289척보다 211척(4.9%) 증가한 4500척으로 집계됐다.

낚시어선 이용자 수는 약 343만명으로 전년에 비해 47만명(15.9%), 산업 전체 매출은 2242억원으로 357억원(18.9%) 각각 증가했다. 또, 1척당 매출액은 연평균 5000만원으로 600만원(13.6%)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 낚시어선 척수는 충남이 1154척(25.6%)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남이 1036척(23.0%), 전남 830척(18.4%) 등 3개 지자체가 전체 신고어선의 67.1%를 운영하고 있었다. 이용객은 경남 84만명(24.4%), 충남 64만명(18.6%), 전남 54만명(15.7%)순으로, 3개 지자체가 전체의 58.9%(202만명)를 차지했다.

매출액은 경남 648억원(28.9%), 충남 526억원(23.5%), 전남 338억원(15.0%)으로, 3개 지자체에서 전체 매출의 67.4%(1512억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 중 낚시어선의 1척 당 매출액이 가장 많은 지역은 전북으로 8900만원이었다. 시도별 1인당 낚시어선 이용 금액은 충남이 8만3000원, 전북 8만원, 경남 7만7000원 순이었다.

## 해수부, 적조 대비 선제적 대응체계 가동

### 6월 28일부터 적조 대응 사전 모의훈련 실시



지난해 8월 적조가 발생한 전남 여수 해안에서 정화선이 황토를 살포하며 방제 작업을 벌이고 있는 모습.

해양수산부는 6월 2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2017년 적조 전망 및 피해 예방 대책'을 보고하고 6월 28일부터 국무조정실, 국민안전처 등 관계기관과 함께 적조 대응 사전 모의훈련을 실시하는 등 본격적인 적조 방제 체제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올해에는 평년보다 섭씨 0.5~1.0도가량 수온이 높아 적조생물(코클로디니움)이 지난해보다 2일 가량 빠른 시기인 이달 4일 검출됐다. 강한 세력의 대마난류 유입 등 적조발생에 용이한 환경이 형성돼 지난해보다 빠른 7월 중순 적조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피해 예방대책에 따르면 해수부는 적조 현황을 신속히 파악하기 위해 전국 204개 조사 지점에서 3월부터 월 1회, 5월부터 주 1회 예찰을 실시하고 있다. 적조예비주의보 발령 시에는 매일 예찰을 실시할 예

정이다. 예찰용 드론 2대를 도입해 선박·항공 예찰의 한계를 보완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실시간 예찰 자료인 '적조속보'를 어업인에게 누리소통망(SNS)으로 제공하는 '적조예보시스템'을 가동해 보다 신속한 초동방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적조 방제를 위해 황토 48만4000톤과 방제장비 9378대를 확보했다.

아울러 6월 28일부터 7월 5일까지 '적조 대응 사전 모의훈련'을 경남 통영과 경북 포항, 전남 여수, 완도 등 4개 시군에서 실시한다.

# 군산 새만금에서 바다의 날 기념식 문 대통령 등 2000여명 참석 성황



제22회 바다의 날 기념식이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 2000여명의 해양수산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새만금에서 열렸다.

제22회 바다의 날(5월 31일) 기념식이 군산새만금신시광장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는 '함께 하는 바다, 다시 뛰는 바다'라는 주제로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송하진 전북도지사, 문동신 군산시장과 해양수산 관련 종사자 2000여명이 참석했으며, 해양수산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에 대한 정부 포상이 이뤄졌다.

최고의 영예인 금탑산업훈장 수상자로 40여년 간 선원 직업 표준능력 개발, 승선 예비역제도 확대 등 선원 권익 보호와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 온 임재택 전 한국해기사협회장이 선정됐다. 한편 해수부는 제22회 바다의 날을 맞아 5월 31일부터 6월 4일까지 '바다 주간 문화체험 행사'를 진행했다.

# 한국수산회, 수산식품 패키지 디자인 공모전 시상



총 10개 작품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대상 수상작으로 선정된 방지혜 학생(건국대)의 '바다의 향을 담은 건어물 패키지'는 물고기 이미지를 패턴 처리한 실용적인 디자인으로 활용도와 실용성에서 높은 평가를 받

았다. 금상 수상자인 김현정 씨(디자인)의 작품인 '해담세트'는 프리미엄 선물세트의 이미지를 잘 표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수상작은 피쉬디자인 누리집(www.fishdesign.c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디자인은 어업인·온라인쇼핑몰 입점업체 등이 활용할 수 있도록 무료로 제공된다.

한국수산회는 수산식품의 포장 디자인 개발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개최한 '어식백세 수산식품 포장 디자인 공모전'의 수상작을 선정, 6월 23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시상식을 가졌다.

지난 4월 24일부터 6월 9일까지 진행된 이번 공모전에는 비닐팩, 냉동진공팩, 종이상자 등 3개 부문에 걸쳐 200여개의 작품이 출품되었으며 이 중

## 공동체 탐방 / 정남진장흥키조개 자율관리공동체

# 장흥 키조개 생산·출하조절 및 자원관리 통해 어업인 소득증대 도모



정재남 정남진장흥키조개공동체 위원장



잠수부들이 키조개를 채취하고 있는 모습. 장흥군 안양면 앞바다는 다양한 미생물과 미네랄 성분을 함유한 갯벌과 모래가 섞여 있어 키조개 생육에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정재남 위원장이 채롱을 이용하여 키조개 양식을 시험하고 있다.



어장 휴식년제를 이용해 양식장 바닥을 청소하고 있는 모습.

자율관리어업의 근본 취지는 어업인 스스로 자원을 관리하고 생산, 유통을 조절함으로써 생산어업인의 소득을 증대시키는데 있다 이를 위해서는 동일한 품종을 생산하는 어업인들이 결성, 이에 공동 대응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생산자간 이해관계가 얽혀있을 뿐 아니라 자금 사정도 각기 다르기 때문에 품종별 공동체 결성 자체가 어렵고, 또 어렵사리 공동체를 구성해도 기대했던 효과를 거두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이 같은 여건을 감안할 때 전남 장흥의 키조개 자율관리공동체는 품종별 공동체의 모델케이스라 할 만하다.

청정해역인 득량만에 인접한 장흥군 안양면 관내 3개 마을(수문, 용곡, 사촌)의 키조개 생산어업인 40여명은 2011년 키조개공동체를 결성한 후, 종패 이식에서 생산출하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협의해 운영함으로써 출하가격 안정을 꾀하고 있다. 특히 자체규약으로 25cm 이하는 채취를 금지하는 한편 채취 후 형망으로 어장을 깨끗이 청소한 후

반드시 어장휴식년제를 취함으로써 생산량 조절의 부가적 효과도 얻고 있다.

장흥 키조개는 매년 봄철 15cm 내외의 종패를 서해안과 여수 등에서 구입, 모를 심듯이 갯벌에 이식해 2년여를 성장시킨 후 출하한다. 이 때문에 종패구입비와 작업인건비 등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있지만 공동체 결성 이후 회원들의 단합을 통해 여러 생산경비를 적절하게 유지해 나갈 수 있게 됐다고 정재남 위원장(57)은 밝혔다. 특히 정 위원장은 회원들이 순번을 정해 키조개를 채취하는 등 출하조절을 통해 공동체 결성 이전 마리당 1800~2000원선에 머물던 키조개 출하가격을 현재 3000원선으로 유지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수온과 먹이가 풍부한 갯벌, 수심의 삼박자를 고루 갖춰 키조개양식의 최적지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안양면 앞 바다에는 회원들의 개인어장(125ha) 뿐 아니라 공동체 자체자금으로 구입해 공동 관리운영하는 어장도 25ha에

이르고 있다. 공동어장에는 올해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육성자금 1억2000만 원에 1억원의 자체자금을 더해 2억2000만원의 예산으로 30만미의 키조개 종패를 심었다. 15년과 16년에 받은 육성자금도 종패 이식에 사용됐다.

뿌린대로 거둔다는 평범한 진리가 통하는 바다지만, 바다사업에는 예기치 못한 시련도 찾아온다. 지난해 여름 고수온으로 이곳 양식장에 엄청난 피해를 입었지만 키조개는 정책보험의 사각지대라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했다. 회원들은 작게는 수천만에서 3~4억원의 손실을 입기도 했다. 키조개는 적조에는 강하지만 수온이 30도가 넘을 경우 위험 수위에 도달하기에 고수온에 대비한 보험제도 마련이 절실한 실정이다.

이와 함께 정 위원장은 현재 다이버들이 직접 바다속에 들어가 일일이 손으로 종패를 이식하는데 소요되는 비용과 노력을 들기 위해 수년째 채롱을

이용한 양식시험을 직접 추진 중에 있지만 아직 만족할만한 성과가 나오지 않고 있어 이 또한 관련 연구기관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다.

한편 정 위원장은 앞으로 더욱 열심히 노력하여 선진공동체로 선정되면 가공시설을 건립하여 명품 장흥키조개의 부가가치를 높이는데 힘을 쏟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정 위원장은 키조개양식에 주력하고 있는 장흥 수문공동체의 전임 위원장으로, 매년 5월 키조개공동체 사무실 앞 광장에서 펼쳐지는 키조개축제에도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